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만, 2017 년은 어둠의 자식들의 끝없는 테러와 악행으로 뒤 덮인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히 비추길 바랍니다. 좌절 속에서 희망을, 주님의 위한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서로 기쁨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길 바라며, 이번 크리스마스엔 빛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빛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밝게 비취길 바랍니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고후 4:6)

(우리 가정에) 2017 년은 위로와 기쁨의 해였습니다. 사순절이전 2 월, 이제 아빠는 이제 아흔으로 편찮은 할아버지를 보러 두 주일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건강 회복에 우선을 두고, 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집안 여기 저기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할아버지의 고향, 북녘이 보이는 오두산 전망대에 갔던 일은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위해 많은 것을 고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번 주말에 10 살이 되는, 나, **띠오도어 애디커스(基澤)**는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잘 받아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모와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이 생각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승현이 외삼촌과 여자친구를 뵈었습니다. 서울에서 엄마 아빠가 결혼하신 정동의 뽀빠 애매당에 가 보았습니다. 예산에 있는 아빠

고등학교에도 갔습니다. 대개는 목사님들이던데 아버지 옛 친구 분들도 만났습니다. 둔산 성광교회 이목사님은 새로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레고 비행기를 사 주셨습니다. 산성교회 지목사님은 한국의 행정수도, 세종시에 제 2 캠퍼스를 세우는 그랜더 비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빠랑 절친한 안양 성결교회의 강목사님은 일요일 오후 맥도날드를 배달 서비스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 아들, 원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길에, 사모님과 함께 지난 9 월 랜함에 방문했지요. 아빠 한국 공군 출신 친구 베테랑들도 만났구요. 9 월에 4 학년이 되어, 잭이랑 나는 학교에 걸어 땀기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던 안오던 화요일과 수요일엔 자전거를 탑니다! 할로윈에는 스타워즈 반군 군복을 만들어 입었고, 지금 트림본을 씩니다.

올해, **우리 가족**은 미국내, 프랑스 구역으로 알려진, 미시시피 강과 루이지애나 주, 특히, 뉴 올리언즈와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내쉬빌에 김(성남) 목사님댁에 들렀다가, 확엔롤 박물관을 둘러보고, 알라바마, 헌츠빌에 있는 우주선 박물관을 보았습니다. 쿨만에 있는 아베 마리아 그로또와 루이지애나의 오우트 엘리 플랜테이션이 인상깊었습니다. 펜사콜라 비치, 힐튼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서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몇 주 지나, 일식을 보러 내쉬빌에 다시 왔었어요. 슬프게도 지난 6 월 16 일 18 살로 강아지 코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젠, 금붕어 하나와 거북이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엄마(영훈)는 프린스 조지 카운테 공립학교에서 400 명 넘는 초등학교 애들을 늘 제가 일어나기전에 학교에 가셨으나, 오후엔 숙제를 도와 주셔요. 한 12 명 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6 월에 피아노 리사이틀을 했답니다.

매주 일요일, **아빠(대화)**는 20 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늘 남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멀티 컨택추얼 목회에 중시 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학교에와서 비힐 선생님을 돕곤 하였고, 시간이 남으면 제레미가 땀기는 학교 기악 선생님을 도왔습니다. 아빠는 “라이트 셰이버”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부서진 장난감들로 여럿 고쳤구요.

여름에 템플 대학교에 다니는 **기디언(基潤)**이 두 달간 집에 왔는데, 처음 일 주일은 내내 잠 만 잤습니다. 그후, 종일 나가 근처 컨추리 클럽에서 일하며 돈만 벌었습니다. 맞다. 제레미도 일했어요. 칠폴레에서! 제레미와 기디언이 상당한 양의 돈은 찻차를 고치는데 쓰여졌습니다. 매 주말 아빠는 찻차를 태워주었습니다. 아리와 몇 몇 친구들과 찻차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난 찻차가 좋아요.

제레미(基沃)는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게 요리도 잘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레미는 공부만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곧 좋은 대학에 가게 되길 바랍니다. 제레미는 운전 면허증을 땀는데, 한때 인화 삼촌에 운전하던 찻차로 학교에 다닙니다. 난 **삼촌**을 본 적은 없으나, 얼마전 크리스마스 트리를 무덤 앞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늘 그가 그림습니다. 우리가 제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즐거운 성탄절과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길 빕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저도